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가능할까

## 박원순 시장, 시 공무원들과 정부 부동산대책 대응 방안 논의 21일 정부 발표 앞두고 내부 의견 조율...국토부와 협의 답보

2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희지 활용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은 17일 오전 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 다음달 18일(국회 행안위)과 22일(국회 국토위) 열리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1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내부 의견을 재차 조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에 관한 시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3일 수요부문 대책 발표에서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3~5등급 개발제한구역을 택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발표대로 택지 공급에 활용할 도심 유희지 역시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내용을 극비에 부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개발예정지 8곳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한 듯 시는 후보지가

강박인지 강남인지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일찍 박 시장과 내부 조율을 마친 시 공무원들은 회의 직후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에 국토부 공무원 등을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심 유희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측 이견이 상당해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를 비롯해 21일 발표 전까지 국토부와의 협의가 담보된다면 시로서는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반대여론이 민면치 않아 시로서는 정부 대책

을 무작정 따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부기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시가 당장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렵다. 여의도 용산개발계획 발인과 유보선언을 전후해 박 시장이 국토부에 의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탓에 시로서는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 시장과 시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13일 발표된 수요부문 대책과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부문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이는 집값 상승의 책임이 박 시장과 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있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서울로7017-주변지역 잇는 7개 보행길 조성 도시재생 파급력 주변 확산 2단계 보행 연결길...연내 계획안 마련

서울시는 공중 보행로 '서울로 7017'에서 서계동, 중림동, 회현동, 후암동, 서소문동 등 주변 도시재생지역으로 싹틔움처럼 뻗어 나가는 보행길 7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로7017이 낡은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재생시켜 기차길로 단절됐던 서울역 동서 지역을 잇는 1단계 연결길이라면 새로 조성될 7개 보행길은 서울로7017을 축으로 도시재생의 파급력과 지역경제 활성을 인근으로 확산시키는 2단계 연결길이다.

시는 서울로7017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Winy Maas)가 제안한 기본구상안 중 7개 연결길 7.6km를 우선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연결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중림길(약 810m)은 약현성당, 성요셉아트센터 등 문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오래된 가옥과 골목이 남아있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특색 있는 장소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중림길(약 790m)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들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순기정체육공원, 경기여성 봉래초등학교를 아우르는 녹지가로를 통해 충정로역 방향 남측 경사주거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숲길로 조성된다.

서계길(약 780m)은 오래된 가옥과 한옥 흔적이 남아있는 좁은 골목을 통해 만리시장과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서울역 일대에 역사 깊은 봉래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서계길(약 1100m)은 청과어린이공원과 국립극단을 지나 청과 언덕길로 이어지는 길이다. 구릉지 오래된 배후주거지를 관통하는 봉재공방, 옛길, 일식가옥 등 생활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심 속 특색 있는 문화길이다.

후암길(약 1300m)은 서울스퀘어 뒤편 양동공원, 후암시장을 지나는 길이다. 서울역 일대 시간의 단편이 켜켜이 쌓인 길이다.

후암길(약 1400m)은 서울로에서 서울로 성곽 등 빌딩 사이 사이 다양한 길을 통해 남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경사가 심하고 보행에 적합하게 계획되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회현~2길(약 1400m)은 적산가옥을 활용한 회현우편취급국 등 근현대 건축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유의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다.

시는 이 7개 길을 공공건축가 7명이 각각 전담하는 '골목건축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골목건축가 7명은 골목길과 건축물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도 지역주민, 공공, 전문가간 소통·조율을 통해 길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8일 오전 9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중림동 스카이1004 9층)에서 '해외건축가 초청 워크숍'을 열어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워크숍에는 서울로7017 설계자이자 암스테르담 예술대상(2004)을 수상한 네덜란드 유명 건축가 비니 마스가 참석해 서울로 2단계 연결길 기본구상을 발표한다.

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마리아 호세 마르코스(Maria Jose Marcos MAGCARCH)는 침체된 스페인 구도심 무르시아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를 직접 발표한다.

시는 총괄기획(서울시립대 유석연 교수)을 중심으로 골목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로 2단계 연결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보호관찰 청소년·보호자 갈등해소 '템플스테이' 성료

### 고양준법지원센터, 천년고찰 흥국사서 30명 참가



17일 밝혔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으로 예산 88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 14~15일 천년고찰 흥국사에서 실시한 템플스테이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에 대상자 및 보호자 16명,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자 8명, 멘터링 결연을 맺고 있는 명예 보호관찰관 6명 모두 30명이 참가했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갈등해소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고

한 사회 복귀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평소 생업 등으로 아이들과 대화의 기회가 적은 보호자들이 눈높이를 맞춘 소통으로 서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고 서로 힐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변모(40세)씨는 "아들과 7년 만에 누워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잠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며 "108배를 하면서 우리 아들 앞날이 잘 되도록 부처님께 빌어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종철 소장은 "앞으로도 부모 자식 간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 경기도의료원 등 6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경기도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를 다음 달 1일부터 연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다른 병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안성병원에는 올해 3월 이전 신축 때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지만, 지금껏 운영하지는 않았다.

도는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위해 장비 구매와 설치비 등 44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촬영하지 않고 환자 동의 때만 선택적으로 할 방침이다.

## 남양주시, 정약용 해배-목민심서 저술 200년 기념우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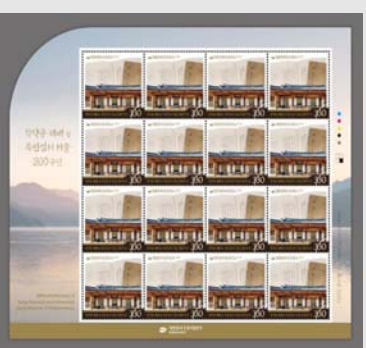
경기 남양주시는 정약용 선생이 고향인 남양주 마재로 돌아온 해배 200주년을 기념해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제작을 신청, 사진공고하고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

아 올해 3월 최종 선정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여유당과 목민심서를 넣은 디자인을 선정하고 시와 협의해 다산문화제 기간인 지난 14일에 발행을 최종 결정했다.

기념우표는 330원권 16매로 구성됐으며, 전국 우체국이나 시청 문화예술과(031-590-2481)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